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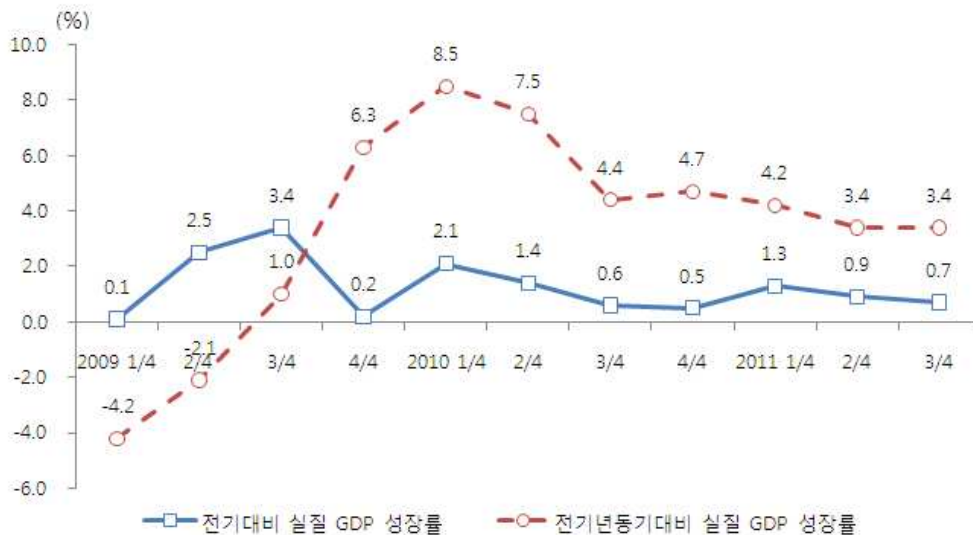
2011년 3/4분기 실질 GDP 3.4% 성장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2011년 3/4분기 실질 GDP가 전년동기대비 3.4% 성장하였으며, 전기대비로도 0.7% 성장을 기록함.

-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, 설비투자의 경우 소폭 성장, 수출은 고성장세 다소 둔화,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함,
 - 민간소비의 경우 승용차, 휴대용전화기 등 내구재와 차량용 연료 등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2.2% 성장하였으며, 전기대비로는 0.6% 성장함.
 - 설비투자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.4% 성장으로 2/4분기 7.5% 성장과 비교하여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, 전기대비로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0.4% 감소함.
 - 수출은 자동차 및 금속제품 등 재화수출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9.4%, 전기대비 2.0% 성장함.

〈그림 1〉 실질 GDP 성장률



자료: 한국은행.

- 건설투자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4.2% 감소하면서 2010년 2/4분기 이후 1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감소폭은 2/4분기 9.0% 감소보다 줄어들음(전기대비로는 2.2% 성장).
- 경제활동별 실질 GDP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에서 감소한 반면,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성장함.
 - 농림어업의 경우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재배업이 부진한데다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2.6%, 전기대비 6.1% 감소함.
 - 제조업의 경우 금속제품,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.0%, 전기대비 1.3% 성장함.
 - 서비스업의 경우 부동산 및 임대 등이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, 정보통신 등이 성장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2.6%, 전기대비 0.3% 성장함.

(2011년 3/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, 한은, 10/27)